



F1 출구전략

적자 < 위약금 부담 1~2회 개최 '가닥'

전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
FOM과 협상서 최종 결론

민선 6기 전남도지사 인수위원회 현안 특위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로 인한 적자보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F1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2017년까지 중단하는 방안이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최 가능성도 낮아져 최종 결론은 이낙연전남도지사 당선자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현안특위는 지금까지 민선 6기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F1 대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26일 의견을 허상만 인수위원장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현안특위를 비롯한 7개 분과위원회 간사, 정책고문 등의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당선자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F1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특위는 지난 2010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 대회 중단 시점까지 그동안 열린 4차례의 개최 효과와 적자 폭 등을 분

석한 뒤 향후 대회를 지속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대회를 중단했을 경우 장단점 등을 토대로 3가지 안을 작성, 이를 집중 검토한 바 있다.

한 위원은 "단기간이지만 지역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합리적인 시각에서 F1를 다뤘다"며 "결과적으로 위약금 규모가 너무 커 적자를 보더라도 1~2 차례 대회를 더 치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F1의 '출구전략'의 하나로 개최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아야 될 경우 이러한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F1조직위원회는 위약금 등 FOM과의 계약 내용은 양측의 비밀 조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약을 위반할 경우 FOM의 권한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발렌시아 역시 2013년과 2014년 2년간 대회를 중단했지만 사전 협상을 거쳐 문제 제기가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가 제외되면서 올해 F1대회 개최국이 20개국에서 19개국으로 줄어들었지만, 내년 아제르바이잔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FOM 측의 자세 변화 가능성도 높다.

전남도 F1조직위 관계자는 "내년에 FOM이 전남도에 개최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개최 여부를 놓고 책임 추궁이나 소송까지 이어진 적이 없으며 원만하게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FOM과의 협상이 F1 대회의 존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F1 적자는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 2013년 181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또 현안특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솔라시도' 사업 역시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관광시설 분야의 적자 폭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눈부신 6월의 신록 때 이른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26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연못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드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국비사업 '핵심' 빠졌다

반영률 광주 80%·전남 57%
차 100만대 기지·F1 미반영
호남 확대 악몽 되풀이 우려도

7월11일 기획재정부 1차 예산안 심의 마감 앞두고 광주와 전남도가 건의한 국비사업 상당수가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핵심사업 대부분이 정부안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국비 '호남 확대' 악몽이 올해에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2015년 국고건의사업 141건 3조2617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반영된 사업은 100건 2조7700억원으로, 41개 사업 5000여억원이 미반영됐다. 반영률은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문제는 핵심 주력 사업 대부분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 국비 반영

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산단 설계비 등 632억원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시는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공약사업에도 국비 미반영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0억원은 물론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 설계비 60억원 반영 등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무등산 관련 예산 등 핵심 사업 대부분의 국비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재부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총 499건 8조2492억원 중 반영된 사업은 341건 4조7269억원으로, 반영률은 57.3%에 그쳤다. 신규사업은 45건에 839억원이 기재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는 '2015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건의액 150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13억원), 독립발전형(Micro Grid) ESS

실증센터(84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200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 가설(100억원), 진도 군내~서망 간 도로개설공사(100억원) 등이 현재 국고 지원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또 201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24억원),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17억원),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200억원) 등은 국제행사 심의중이거나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7월11일까지 1차 심의를 마친 뒤 2차 심의(7월24~8월14일), 미결·쟁점심(8월18~27일)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까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홍원 총리 유임 靑, 인사수석실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달 전 사의(辭職)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를 유임도 록 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찾아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실패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두루 발굴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BRASIL 2014

<관련기사 18·19면>

월드컵 16강전	(한국시간)
브라질	29일 오전1시 칠레
콜롬비아	29일 오전5시 우루과이
네덜란드	30일 오전1시 멕시코
코스타리카	30일 오전5시 그리스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삼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장부량/100km 연비 및 배출량: C 200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8단, 복합CO₂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assivacoustic sound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8단, 복합CO₂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8단, 복합CO₂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르르상, 운전방법, 차량제어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